

6 기획

교통안전법 개정, 국제캠퍼스도 시설 보완 필요 안전표지판 · 신호등 설치가 우선 순위

추천호 기자 changlon1212@khu.ac.kr

#지난호에서는 교통안전법 개정
에 따른 서울캠의 상황을 짚어보았
다. 서울캠의 경우 변화가 필요한
구간이 캠퍼스 내에서 다양했다. 하
지만 부지 협소 등 현실적인 이유로
개선이 어려운 부분 역시 많았다.
이번호에는 국제캠의 현재 상황을
짚어보고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져
야 할지 살펴보고자 한다.

【국제】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캠
퍼스 내부 도로와 관련 시설물 변화
가 필요해졌다. 특히 보행자 안전을
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이 필수가 됐
다. 교통안전시설물이란 횡단보도,
속도제한, 교차점 마크, 과속방지
턱, 신호등과 같이 교통안전에 필요
한 주의 · 규제 · 지시 등을 표시하
는 표지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
기호 ·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.

차량에 도로상황 전달할 표지판도 부족

대학 캠퍼스가 적응받게 된 「단
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·관
리기준」에 따르면 위험, 통행금지,
천천히, 정지, 양보, 횡단금지, 일시
정지, 제한속도 등의 안전표지가 필
요하다. 그러나 현재 국제캠 내에서
는 '진입 금지', '주차 금지'가 적힌
간이 표지판이 각각 1개씩 존재하
고 있었다.

국제캠의 경우 캠퍼스가 넓고 차
량 통행량이 많아 표지판 부족은 구



선승관 앞 도로의 경우 차량과 인파가 몰리는 구간으로 신호등과 같은 안전시설이 필요해보인다.

(사진=추천호 기자)

성원의 안전 우려로 이어진다. 더욱
이 국제캠에는 현재 차고지 계약을
맺고 광역버스가 캠퍼스 내부를 운
행하고 있다. 따라서 주기적으로 버
스가 캠퍼스 내를 운행한다. 이러한
상황에서 신호등과 표지판을 비롯
한 교통안전 시설물이 부족해 위험
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
나온다.

최서연(생체의공학 2020) 씨는
“학기 중에 버스가 제한속도를 지
키지 않고 빨리 달리는 경우가 많아
위험한 상황을 자주 목격할 수 있

다”며 “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
한속도를 잘 지키게 할 수 있는 방
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”고 말했
다.

버스운전사 김무열 씨는 “국제캠
퍼스 내에는 표지판이 부족해 도로
상황을 알기가 어렵다”며 “운전자
들도 제한속도 같은 규정을 표지판
을 통해 도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
좋을 것 같다”고 말했다.

교통사고 위험 낮출 신호등 설치도 필요

신호등은 법이 명시하는 교통안
전시설물이 아니지만 교통사고를
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이다.
행정안전부에서 교통사고가 잦은
곳을 대상으로 신호등을 설치하는
개선사업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
사망자수는 80%, 교통사고 건수는
30.3% 감소했다.

사정이 비슷한 명지대학교의 사
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. 명지대
학교의 인문캠 정문 앞 횡단보도
에는 신호등이 설치됐다. 명지대학교
총무시설팀 전용우 팀장은 “실제로

과속차량, 불법주차, 접촉사고 등이
신호등 설치 이전에는 자주 일어났
었는데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다”고
말했다. 또 “차가 많이 막힌다고 불
편해하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그보
다 구성원들의 안전이 더 우선”이
라고 말했다.

신호등 설치를 요구하는 국제캠
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
다. 대표적으로 응용과학대학(응과
대) 앞, 정문 앞 도로 등 보행자가 자
주 이용하는 도로들에 신호등이 없
다는 점을 지적했다.

루 창(컴퓨터공학 2021) 씨는 “응
과대 앞에서 이어지는 계단 아래에
는 인도 없이 바로 차도가 있어 주
위를 항상 둘러보고 위험한지 고려
해야 한다”며 “신호등 같은 게 있으
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다”
고 말했다.

김상우(프랑스어학 2018) 씨는
“정문 양옆에 있는 길을 건널 때 차
량 통제해 주시는 분이 안 계시면
계속 눈치를 보면서 길을 건너야 한
다”며 “정문 쪽으로 나가는 차량 신
호등이 빨간불일 때 보행자 신호등
은 초록불이 되는 식으로 신호등이
만들어지면 길을 건너기 훨씬 편할
것 같다”고 의견을 전했다.

차량의 입장도 마찬가지다. 차량
역시 항상 보행자를 염두에 두고 운
행해야 한다.

국제캠 안에서 버스를 운행하는
김무열 씨는 “국제캠 캠퍼스는 보
행자를 계속 생각해야 해 운전하기
어려운 면이 있다”며 “신호등이 생
긴다면 운전자도 안심할 수는 있을
것”이라고 말했다.

2024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

경희대국제학군단
031) 201-3271 ~ 2

모집대상 | 대학의 1, 2학년 남녀 재학생

모집기간 | '24년 9월 2일(월) ~ 10월 13일(일)

지원접수 | acq.armyofficer.mil.kr

지원서접수



모바일홍보관

